

제 6 권 지옥

1. 가장 큰 상실

출처: “Our Souls” in *Old Paths*.

저자: 존 라일(1816-1900): 성공회 주교. 기록, 옛길, 풀린 매듭 등 많은 책을 썼다. 영국, 체셔 가운티 막클레스필드에서 출생

역자: 신형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막 8:36)

서두에 써 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진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다. 위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질문은 얼마나 엄중한가! 얼마나 엄청난 유익과 상실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가! 이를 계산해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 계산 결과를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나는 주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하신 질문을 제기하고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말을 하겠다. 나는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영혼의 가치를 더 깊게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하늘을 향한 첫 걸음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할 말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다. 나는 자신 있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어떤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상하고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따질 것이다. “누가 이런 것조차 모르겠는가? 누가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가?” 하지만 세상이 지극히 호화스러울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는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대다수가 땅에 속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은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영원한 것들은 짙은 안개로 가려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중대한 의무이다. 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영혼에 관한 우리 주님의 질문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이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의 육신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신을 따듯하게 하고, 차려 입히고, 먹이고, 편안하게 하는 데 너무나 많은 생각과 시간을 쏟아 붓고 있다. 육신은 고귀한 임차인에게 잠시 빌려준 숙소와 같은 것일 뿐이다. 그 임차인은 불멸의 영혼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만 그것이 인간의 끝이 아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하고, 관

의 나사를 조이고, 장례식이 준비되고, 무덤가에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선포하고, 육신이 이 세상의 땅에 묻히고, 사회가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모든 사람 안에 불멸의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수백만 가지이다. 누구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질병으로 병상에 눕고 세상으로부터 차단될 때, 친구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에 묻힐 때, 다들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지 않던가!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면서 죽음 뒤에 장차 올 삶이 있으며, 존귀비천을 망라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당신은 때로는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이 전부이고 육신의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대항하여 뒤로 제치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마다 다짐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사라진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사업, 돈, 쾌락, 장사 및 무역 외에 무언가가 있다. 장차 앞으로 올 삶이 있다. 우리 모두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할 말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주제의 슬픈 부분이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오직 평안만을 예언하며 그들이 영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 강추는 자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성경 전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구식 목사 중 한 사람이다. 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누구나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는 마귀가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나는 실제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멸망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눈먼 사람이 절벽을 향해 비틀거리며 가는 것을 보면 "멈추세요!"라고 외치지 않겠는가? 사랑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라!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선한 것들에 대해 약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향해서는 온 힘을 다한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 이 점을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당신은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씻을 수 없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두운 기록 중 단 하나라도 지울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대가로 우리 피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백보좌 앞에 우리가 서고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청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왕이 그분의 손님들을 보기 위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마태 22:12)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

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무런 변명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잃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엄중한 대답은 하나뿐이다. 잃은 영혼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이다. 소멸 같은 것은 없다. 길 잃은 영혼이 가는 곳은 벌레들이 죽지 않고 우글거리며, 뜨거운 불이 수그러들지 않으며, 어둠과 암흑, 비참함과 절망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길 잃은 영혼에게 맞는 유일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시 9:17).

우리는 엄청난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탄은 사방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어둠은 깊어가고 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의 영혼을 잃지 마라.

2. 지옥은 어떤 곳인가?

출처: Biblical Teaching on the Doctrines of Heaven and Hell.

저자: 에드워드 도넬리: 뉴타운 아비에 위치한 트리니티 리폼드 장로 교회 목사; 벨패스트 리폼드 신학대의 신약 교수

역자: 안선형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마 3:7)

신약 시대의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지옥 교리를 기본 교리로 가르쳤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 ‘영원한 심판’을 언급한다(히6:1-2). 다시 말하면, 지옥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소개되는 기본 가르침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지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교리가 지향하는 핵심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1) 지옥은 하나님이 의해 지어진 실제 장소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단지 이생에서 겪게 되는 불행 정도로 생각한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 떠오른다. “내게는 유행도 석쇠도 아닌, 타인(他人)이 지옥이다.” 그는 인간의 잔혹함이 주는 고통을 지옥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지옥 같아”, “지옥에 갔다 왔어”라고 말한다. 마치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암흑기와 슬픔과 고통을 지옥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옥은 실재하는 장소이다. 지옥은 비유도, 상징도 아니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삶의 고통이나 마음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지옥은 심리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부자가 ‘이 고통 받는 곳’(눅16:28)을 언급할 때, 지형학(지형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나온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 ‘곳’을 사용한다.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제 곳으로 갔나이다”

(행1:25)라고 말하였다. 우주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옥은 정확히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쫓겨나’(마8:12), ‘밖에’(계22:15), ‘바깥 어두운데’(마8:12, 22:13, 25:30) 등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지옥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부터 멀리 외떨어진 곳임을 알려 준다.

신약성경에서 지옥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은 게헨나(Gehenna)로, 이 단어는 흥미로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게헨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의 신 몰락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제물로 바쳤던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힌농골짜기를 일컫는다(대하28:3, 33:6, 왕하23:10). 이곳은 사악한 행위를 벌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찢는 비탄의 장소였다. 주후 1세기까지 힌농골짜기는 밤낮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용됐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힌농골짜기하면 매캐한 냄새가 나는 연기와 벌레 떼를 떠올렸고, 그곳에는 온갖 더럽고 흉물스러운 것만 있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지옥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끔찍하지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단어를 선택하셨다.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실재하는 장소이며, 그곳에는 주의 명령에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마25:41).

2) 지옥은 공정하다. 그리고 가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지옥은 형벌을 받는 장소이다. 오늘날 이보다 더 인기 없는 말이 어디 있는가? 물론 모든 형벌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정적 처벌은 이제 곧 받아들여질 것 같다.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훈계할 권리를 강제적으로 빼앗을 정도의 위력은 없다. 훈계의 목적은 자녀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훈계를 통해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훈계의 불쾌한 경험을 통해 배워서 부모들이 다시 그들을 벌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교도소 역시 동일한 철학을 따르고 있다. 즉, 수감생활의 목표는 범죄자의 갱생(更生)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방적 차원의 처벌을 수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처벌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범죄를 짓는 것과 이로 인한 비슷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며 소수의 범죄자를 교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대의 형벌 제도는 악을 행한 범죄자에게 그가 저지른 악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징적인 형벌을 용인하지 않는다. 응징적인 형벌은 죄를 미워하고 정의 실현을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벌은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일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적이거나 문명화되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둠의 망령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옥의 환영(幻影) 때문에 괴로워한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속삭임은 사람들의 의식에 불안을 안겨준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말로도 그토록 겁을 먹으니 사람들은 사회에서 응징적 형벌과 관련된 그 어떤 사상도 최선을 다해 지워버리려고 한다. 지옥 형벌은 응징이다. 지옥 형벌은 갱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옥 형벌은 사람을 더 훌륭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연옥 사상은 죽은 다음에 고행으로 개과천선하여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근거 없는 믿음이다. 지옥의 고통은 절대로 지옥 형벌을 받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지옥 형벌에 대해 듣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예방적 차원의 형벌도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 책을 펴시고 모든 이의 최종 운명을 선포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형벌 선포를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악한 행위는 악이며, 하나님은 악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응징적인 형벌을 내리신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참되고 의롭다. 성경은 모든 불신자가 형벌을 받지만, 정도는 다르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죄가 크면 벌은 더 무겁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보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죄를 더 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12:47-48).

특권을 누리면서 게으른 자가 받는 형벌은 더 클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지역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준엄한 경고를 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마11:21-24).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자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범적인 갈릴리 어촌 마을이 이교도의 도시 두로나 변태적인 소돔보다 죄가 더 크다고 보신 것이다. 이는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거절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성경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서기관들이 그들의 위선과 탐욕과 거짓 때문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참조, 막12:38-40)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직도 구세주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든다. 지옥의 가장 깊숙한 구덩이는 악명 높은 악인들보다는, 어릴 때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친숙하게 접했지만 결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형벌의 등급이 어떻게 매겨질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된 바는 없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마도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더 후회할 것이고 탄식도 더 깊을 것이다. 부모님의 훈계와 기도를 기억하면서 느끼는 가책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같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이 형벌은 공정할 것이다. 이에 지옥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옥은 공정하다.

지옥은 또한 무섭다. 이는 지옥은 “울며 이를 갈게 되고”(마8:12),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막9:44) 곳이기 때문이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이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14:10-11).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지옥은 영원하다. 현대 사회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하다. 성경은 영생에 쓰인 같은 헬라어 ‘영원하다’를 ‘영원한 멸망’(살후1:9), ‘영원한 불, 영벌’(마25:41, 46)을 말씀할 때 사용하였다. 하늘의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에서 받

는 고통도 영원하다. 유다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유1:7)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유 1:13)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끔찍하지만 공정하고 영원한 이 형벌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는가! 존 칼빈은 “분명히 성경 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려고 의도하셨다”라고 말했다.

3)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가는 곳이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무례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썼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계20:10)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마귀의 사자들’(마 25:41)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지금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유1:6) 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익히 알고 있었고 구세주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막 1:24; 눅8:31).

또한 지옥은 악명 높은 악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계21:8). 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악인들을 모아놓은 전시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재미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지옥에는 뻔뻔스러운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가 ‘불꽃 가운데에’ 형벌을 받을 자인지 밝혀준다.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극악 무도하게 타락한 자들인가? 히틀러 추종자들인가? 공산주의자들인가? 맞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살후1:8) 모든 자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바르고 품위 있게 살았다. 모범시민으로서 부모도 공양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하는 이웃에게는 다정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에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마 당신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떠한 중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며, 사실 부끄러울만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며, 당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설사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가운데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4) 불신자로 죽은 자의 운명은 반복되지 않는다. 심판 날이 되면 죽었던 불신자들의 몸은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가 되어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있다. 이 세상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천국과 지옥 사이의 대기실도 없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순간까지 영혼이 잠들거나 무의식 상태로 있는 기간도 없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

믿는 자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를 소망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빌1:23). 구주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이는 정확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정반대로 불신자가 죽을 때는 사탄이 있는 것으로 가게 된다. 이는 훨씬 열악한 일이다. 불신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귀는 만족스러운 듯이 속삭인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야.”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거나, 사탄과 함께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스올(Sheol)과 신약 성경의 하데스(Hades)를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들이 머무는 중립적인 중간 상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언급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스올과 하데스는 어떤 때는 사람이 묻히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는 자들과는 무관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킹제임스성경은 스올을 문맥에 따라 ‘무덤’, ‘구덩이’, ‘지옥’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보다는 믿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자세히 말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드시면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말씀하셨다. 부자는 죽어 장사 되었고 그의 다섯 형제는 아직 이 세상에 생존해 있다. 세상의 끝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자는 죽었으나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고”(눅16:23) 있는걸 보니 의식은 살아 있다. 그의 몸은 땅속에서 썩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눅16:24)라고 울부짖고 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불신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견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벧후 2:9). 기회는 두 번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장래의 소망도 없으므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죽은 자는 우리의 기도 영역 밖이라 도울 방법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

이래서 복음은 긴급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부르신다. 이는 일단 죽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 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면서 마지막 날에 멸망 받은 몸과 재결합하는 것 외에 기대할 것이 없다.

5)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지옥은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옥은 왠지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옥을 핵폐기물 저장소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 안에 가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묻히고 봉인된 후 잊힌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제 그 끔찍한 고통의 장소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진 상태에 있다고 본다. 존 밀턴¹⁾은 위대한 청교도였지만 이런 그릇된 생각이 퍼지는데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실낙원』에서 천사장이었던 사탄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아 붓는다. 존 밀턴은 지옥에 막 들어가려는 마귀에게 이런 대화를 하게 했다. “적어도 지옥에서만큼은 우리는 자유로울 거야. 거기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지. 비록 지옥이지만 내 맘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욕망은 해결한 거지. 천국에서 종으로 사느니 지옥에서 왕으로 사는 게 나으니까”

존 밀턴은 사탄에게 매우 섬뜩한 희망을 주었다. “지옥에서는 자유로울 거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실제로 사탄이 생각하고 바랐던 일일 것이다. “비참한 지경에 처하겠지만, 내 주인은 바로 나와.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며,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지옥을 다스리신다. 지옥은 독립해서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악마의 왕국이 아니다. 지옥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눅12:5)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불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마25:41).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신다. 이는 저주받은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무서운 말씀인가!

그렇다. 마귀는 지옥에서 통치권이 없다. 우리는 마귀를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반항아로 표현하면 안 된다. 밀턴은 사탄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말하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쩐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닐 터. 불굴의 의지가 남아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는 남아 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나 능력으로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지. 고개를 숙이고 애원하듯 무릎을 꿇어 자비를 빌고 하나님의 능력을 숭배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 나의 몰락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군.”

이 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듯 하다. 그렇지 않은가? 굴복하지 않는 의지, 피투성이지만 곳곳이 찢든 얼굴, 무너지지 않는 정신은 호되게 당할지라도 뭔가 당당함이 있다. 이런 반항적인 도발은 교만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호소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거짓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10-11). 사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의 의지 또한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용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탄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다. 모든 면에

1) 존 밀턴(1608-1674): 영국 시인이며 은혜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타락을 묘사한 <실낙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서 이미 패배했다. 사탄은 그의 사악한 위엄으로 어둠의 왕이 될 수 없다. 다만 하찮은 존재로서 전능하신 왕이신 만유의 주 앞에 복종할 뿐이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옥도 다스리신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오직 경외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고 기이한 방법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의 권위는 이전에 나타났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를 기이히 여기며 놀라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죄가 없는 천국 백성이 지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십사 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감사하옵나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계11:17-18)라고 말한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찬양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계16:5-6).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지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3. 악인에게 임할 영원한 고통 -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출처: “The Future Punishment of the Wicked”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미국 회중 교회 설교자. 대각성 동안에 설교하였다. 식민지 코백디컷 이스트 원저 출생.

역자: 스테반 황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겔 22:14).

나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다룰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임명된 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을 헛되게 한다. 그들은 부모나 상담자들의 경고, 그리고 목사들의 책망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고함과 교만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신다.

1)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심으로 주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복종을 요구하신다. 주님의 명령은 매우 적극적이며 그들의 의무 수행을 엄격하게 요구하신다. 반면 그들의 의무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시고 그들은 계속 거역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헛되이 여긴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그 경

고를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주께 모독을 끼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시지만 그들은 주의 진노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자비에 대해서도 멸시한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그들은 거절한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빛더미에 올라앉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빛을 갠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 바로잡아 오셨다. 주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주께 빛을 진 자들의 빛이 지불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는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죄악 중 하나라도 잊은 것이 없으며, 모든 죄악의 빛이 지불되어야 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신 7:10).

2) 하나님은 주의 위엄을 신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은 주의 위엄을 경멸한다. 그들은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만 주의 위대함을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경멸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대한다. 그들은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그들은 주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며 때때로 함께 모여 수년 동안 그 권위를 발로 짓밟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주의 위엄과 영광을 더럽히도록 내버려주지 않으신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주의 영광과 위엄을 흠 속에 짓밟지만, 그 위엄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징조는 전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주의 위엄을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면, 그 위엄은 정말로 땅에 묻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명예와 영광을 그의 원수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주의 영광과 위엄은 주께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무시될 수 없다. 이에 하나님은 친히 주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죄인들은 주의 아들을 멸시하고 발로 짓밟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 그리고 온 하늘과 온 땅 앞에서 지금 주를 멸시하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3)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매우 강박하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종종 손을 높이 들고 죄를 짓는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욕을 하며 그들의 말은 온 땅에 퍼져나간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욘 21:14)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선적인 겉모양으로 감춘다. 즉, 겉으로는 종교적인 얼굴을 하고 진지한 표정과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비밀리에 다스리는 것은 죄이다. 그들의 멋진 겉치레와 외적인 선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한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미움과 완고함과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서도, 나아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강권하시는 때에도 그러하다. 그들은 반역의 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하고 교만

한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업신여긴다.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경멸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잡으러 오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임할 주의 진노는 무시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배울 것이고 다시는 그 교훈을 잊지 못할 것이다.

4)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 목사들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두 헛수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설득하실 것이며 효력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의 경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고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주실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비싼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들은 지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늘 의심을 품는다. 그들은 지옥에 대해 많이 듣지만 항상 꿈처럼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과 달리 지옥을 보게 하실 것이다. 목사들은 오늘날에도 자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그것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들은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이루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알려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들의 교훈을 떠내려 보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시키실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에 대해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가 아무리 지옥을 무섭게 제시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려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고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바로 잡으실 때에는 철저하게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응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선언되었다.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신 32:41). “여호와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신 7:10).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겔 24:14). 이에 주의 경고는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만일 그들을 다루는 존재가 무력하고 또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아침 등에 의해 경고된 처벌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 그 어떠한 소망도 헛될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채 죽은 후 몰래 하늘로 들어갈 가망은 전혀 없다. 거짓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속여 실수로 천국에 들어갈 가망도 전혀 없다. 짐승들처럼 죽음과 함께 존재 자체가 사라짐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가망도 전혀 없다. 몸을 벗어날 때 통지가 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하게 될 가망도 없다.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을 못 보시고 처벌을 잊게 되실 가망도 전혀 없다. 대심판의 날에 그들이 군중 속에서 몰래 빠져나가 산굴이나 땅의 비밀 구멍에 자신을 숨길 기회를 가질 가망도 전혀 없다. 그들이 재판관의 오른 편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슬쩍 끼어들어 몰래 하늘로 들어갈 가망도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이전에 하신 말씀을 후회하실 가능성 역시 전혀 없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실패한 적이 있는가?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경고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처벌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처벌을 완화시킬 수도 없다. 이 사실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다.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건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겔 22:14). 지옥에 있는 악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구원이나 어느 정도의 안도를 결코 얻을 수 없다.

1) 그들은 고통 가운데 그들의 ‘적’을 물리칠 수도 없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며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그들을 처벌하시니 바로 그들의 ‘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항할 그 어떤 힘도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2)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주의 진노의 맹렬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만족도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3) 그들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중보자에 대해 자주 들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러한 중보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옥에서는 그 어떤 친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천사들과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피조물도 있을 수 없다.

4) 그들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탈옥하거나 도망칠 방도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감옥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어둠의 사슬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지옥은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사람들과 악인들이 힘을 모아 감옥 문을 깨뜨리거나 열려고 하여도 유한한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달으면 열 사람이 없다”(참조, 계3:7).

5) 그들은 지옥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이나 또는 다른 곳보다 좀 더 시원한 비밀스러운 구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거나 지극히 작은 선이라 베풀 수 있는 동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불과 화염에 의해 고통을 당할 것이며 밤낮으로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받는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그 재앙을 차단하려고 애를 쓴다. 만일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앙이 임한 후에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당해야 하는 때는 마음을 강하고 먹고 온 힘을 다해 버티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이런 결심이나 생각은 완전히 헛되다.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디거나 버티어낼 수 없다. 그 고통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큰 바위 아래 깔린 벌레가 힘을 모은다고 해서 바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허황된 것은 저주 받은 가련한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해 보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 소리를 듣게 되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 “음, 만약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최대한 견딜 수 있겠지.” 그들은 마치 결심과 굳은 마음으로 지옥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아! 하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결심도 하지 못하고 용기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아무리 견디어 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 진노를 느끼는 첫 순간부터 그들 마음은 용광로 앞의 밀랍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용기와 다짐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가장 억세고 완강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갓난아이처럼 용기를 잃을 것이다. 그들은 그 어떤 용기와 힘과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다. 어떤 사람은 “만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장래의 형벌을 막을 수 없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으로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은 어떻게 되겠는가? 몸의 본성은 지극한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 동안 버틴다. 큰 몸부림과 고통의 신음과 혈떡거림이 있을 것이며 아마 경련도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몸 자체가 버티어보려는 몸부림이다. 말하자면 몸의 본성 속에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다. 하지만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때로 몸의 통증이 너무 통렬할 때는 몸의 본성이 그 통증을 지탱할 수 없다. 아무리 몸의 본성이 몸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는 몸의 본성은 몇 번의 몸부림과 신음소리와 혈떡거림이 보인 후 한 두 번의 비명을 지른다면 거친 고통에게 굴복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그 몸은 죽는다. 이것이 몸의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영혼 역시 그러할 것이다. 영혼은 그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나 힘이 없다. 영혼의 힘이 감당하기에는 그 고통과 공포가 너무 크고 강해서 영혼의 본성과 성향에 반할지라도 마침내 힘을 잃고 만다. 그리고 그 영혼은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이 조금도 없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침몰한다. 그럼에도 영혼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혼의 침몰로 인한 무한한 비참과 무너짐의 의식 역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이 뜨거운 난로 또는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졌다고 상상해 보자. 거기서 당신은 어쩌다 실수로 불에 덴 그런 경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불의 온도는 훨씬 높고 불의 세기는 훨씬 세다. 당신이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훑훑 불이 타오르는 그 용광로에 15분만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용광로 입구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울까! 15분 동안 용광로에서 탈 때 그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1분 동안 참은 후, 나머지 14분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중압감은 어떠할까! 만약 24시간 동안 최고의 고통을 참아 내면서 그곳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한 상태로 1년 내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만약 당신이 천년 동안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영혼이 받는 중압감이 무한하게 클까! 오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그 고통을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철저히 무너지지 않을까! 그 기간은 끝이 없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고통은 끝이 없으며 그럼에도 결코, 절대로, 구출은 없다. 이것이 율법이 경고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극도의 의미에서 죽는 죽음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죽음이다. 이는 생생한 감각 속에서 계속 죽는 것이며, 그 죽음을 알고 죽는 것이고, 죽음의 어둠을 느끼며 죽는 것이다. 이것이 멸망이요 파멸이다. 이러한 지옥의 무한한 중압감 가운데 영혼이 무한하게 침몰하는 것이 지옥의 어둠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둠속의 질은 어둠에 대해 읽는다. 그 어둠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그 질은 어둠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들이 길을 잃고, 그들의 영혼을 잃는 것에 대해 읽는다. 이는 의도된 표현이다. 즉,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하게 잃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이든 여자이든, 젊은, 약하든,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라. 만일 당신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의 진노와 능력을 당신에게 부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지옥에 있는 당신을 무한하게 침몰시키실 것이다. 주께서는 심판의 날에 이 땅에서의 그 어느 때보다도 수 천 배나 더 큰 회중 앞에서 당시의 비참을 통해 주의 위대한 위엄을 나타내실 것이다. 당신 앞에는 성도들의 큰 무리와 악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와 더러운 마귀들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무리 앞에서 당신을 멸망시키시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모든 무리들 앞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멸망과 비참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모든 무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모든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죄를 진 것과 그러한 구세주를 거절한 것과,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그 위대한 광경 앞에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4. 영벌의 부활

출처: "The General Resurrection" in *Sermons of the Rev. Samuel Davies*, Vol. 1.

저자: 사무엘 데비스(1723-1761): 장로교 목사. 프린스턴 신학교의 4대 총장. 대각성 때의 설교자. 델라웨어 뉴 캐슬 카운티의 서미트 리지에서 출생.

역자: 정석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

누구도 그 수를 셀 수 없고, 공개적으로 사면 받고, 축복을 선포 받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으로 환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군중을 보라(마25:34)! 이제 그들은 생명의 이름에 합당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하고, 모두 활동적이고, 모두 영화롭고, 모두 행복하다. 그들은 태양처럼 창공의 어떤 별보다 더 밝게 영원히 빛난다. 그들의 모든 기능들은 행복으로 넘쳐흐른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천사의 무리와 어울린다. 그들은 보이지 않음에도 사랑했던 구주를 바라본다. 그들은 그들의 영의 아버지와 영원한 친밀감에 머문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의 숭고한 섬김 가운데 새롭고 깊어지는 기쁨을 누린다. 그들은 결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비참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무한한 기간에 그들의 본성이 누릴 수 있는 만큼 행복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인가! 흠으로부터 형성된 이 피조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중 누가 이 행복한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는 말인가! 오, 미약하고 죽어가는 죄악된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러한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다.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맞기를 바랄 때 그 전망은 매우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슬프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 세계의 대담한 죄인들이 이 말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그 끔찍함을 맛보는 그들의 지옥 형제들은 그렇게 대담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며 신음하면서 그 말을 더 이상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

인류 가운데 심판의 부활에 속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깨달으라. 지하 세계의 감옥에서 올라온 생명을 보라. 공포가 온 몸의 피를 통해 퍼지고 그들의 눈을 부라리게 만든다. 모든 관절이 떨리고 얼굴은 어둡고 우울하다. 이제 그들은 한 때 경고 받을 때 흘려보내며 가볍게 여겼던 끔찍한 심판의 날을 보면서 공포에 떠다. 그들은 그 날에 있을 거대한 일과 왜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 끔찍한 목적을 당장 알게 된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정죄를 당한 뒤 처형을 받기 위해 끌려 나갈 것이다.

양심은 독립된 상태에서 재판관을 기다려왔다. 이제 곧 영혼은 몸과 합쳐질 것이고 양심은 마음 안의 왕좌에 오를 것이다. 양심은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더니 비난하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 그 죄인은 그의 재판관이 법정에서 자기 안의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의 새로운 존재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첫 번째 행동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확신이다. 즉,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미리 아는 가운데 법정에서 들어간다. 그가 재판장사의 왼편쪽으로 서라

는 명을 듣고 그 쪽에 서면 끔찍한 형벌이 그를 향해 천둥처럼 큰 소리로 선포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마 25:41). 이 선포는 그가 기대했던 것이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헛된 소망으로 자신을 속여 아침하고 양심의 빛에 대해 눈을 감았지만 그때는 그가 아무 것도 소망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 그는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알 수밖에 없다. 사법 재판의 형식은 세상에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필요하지만 그의 경우는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양심이 이미 그의 유죄 상태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운명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의 무덤에서 끌려나와 심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가 불타는 보좌와 그가 한때 무시했던 그의 재판장 예수님의 찡그린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겠는가! 주의 성난 눈으로부터 숨고 싶어서 바위와 산이 그를 덮어주기를 얼마나 바랄까! 그러나 그의 모든 바람은 헛될 뿐이다. 그는 주 앞에 서야 한다. 그는 떨고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 함께 서도록 원편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그의 모든 악행과 그의 모든 의무 위반이 이제 그를 상대로 제기된다. 그가 욕을 퍼붓던 모든 자비들과 그가 열시했던 모든 책망들, 그가 우습게 여겼던 모든 은혜의 수단들과 그 수단들을 오용한 사실들, 모든 죄악들과 심지어 어리석은 말, 아니, 그의 가장 깊은 생각들과 성향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이 그것을 제시하며 그 사람에게 "죄인이여, 이것이 맞는가? 이 혐의가 사실인가?"라고 물으면, 양심은 그를 강권하여 “그렇습니다. 유죄입니다.”라고 외치도록 한다.

자, 떨고 있는 범죄자는 아무런 항변 및 변명없이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최고 재판관은 엄격한 위엄과 가차 없는 공의로 무서운 형벌을 크게 선포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오, 끔찍한 멸망이여! 모든 판결마다 공포로 가득 차고 죄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번개를 쏜다. “떠나거라. 내 앞에서 사라지라. 끔찍한 장면을 견딜 수 없다. 나는 너를 불러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였지만 너는 그 부름을 무시하였다. 이제 너는 너를 초대하는 그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이다. 나를 떠나거라. 행복의 유일한 샘이요, 불멸의 마음을 위한 유일한 선인 내게서 떠나라.”

이때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 제가 떠나야 한다면, 나가기 전에 저를 축복하소서.”

분노하는 재판장이 말한다.

“안 된다. 저주의 상태로 떠나라. 나의 영원하고 무거운 저주를 안고 떠나라. 그 저주는 너를 지은 능력의 저주이며 지독할 정도로 효력이 분명한 저주이다. 그 저주가 임한 곳에는 저항할 수 없는 불타는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무엇이든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죄수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의 저주 아래 떠나야만 한다면, 그것이 나의 형벌이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 저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용한 침의 장소 및 마음에 드는 곳으로 떠나게 하소서.”

“안 된다. 불뚫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끝없이 불에 타며 끝없는 고통을 받도록 하라.”

가련한 그 죄인이 부르짖는다.

“그러나, 주여, 적어도 친근하고 즐겁고 마음을 나눌 동료들을 허락하셔서 고통을 덜하게 하소서. 오, 이 청이 허락될 수 없다면 청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청을 허락하소서. 저를 지옥의 어떤 외딴 곳에 있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 양심과 주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서만 벌을 받게 하소서. 그러나, 오,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마귀들로부터 구원하소서! 지옥 구덩이 가운데 그들이 없는 어떤 구역으로 나를 유배로 보내소서.”

“안 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으니 그들과 함께 형벌을 받도록 하라.”

선고가 선포되고 나면 그대로 당장 실행된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마 25:46). 그들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둠의 사슬에 묶여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불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끔찍한 단어에는 고통이 강조되고 있다. 그 고통은 지옥 안에서의 지옥이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수억만 년의 시대를 보낸 후에 소멸됨으로써 지옥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는 약간의 완화와 격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아! 하늘의 별 만큼 또는 바다의 모래알만큼, 또는 이 지구의 모든 먼지의 수만큼, 수억만 년의 시대가 지날지라도 그들의 형벌의 끝은 그들에게 선고가 선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멀다.

“영원히!” 그 단어에는 소멸이라는 것이 없다. 이 단어가 가장 심한 비참에 붙으면, 그 끔찍함과 공포는 그 누구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 어마하다. 독자들이여, 시간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잠깐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영원! 모든 중요한 영원한 것들은 영원에 속하여 있다.

영원한 이 기간 동안, 양심은 가장 고통스러운 후회로 그 죄인의 마음을 찢는다. “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들! 그 기회를 살렸더라면! 나는 죄와 부주의한 삶의 결과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지. 나는 믿음, 회개, 그리고 마음과 삶의 보편적인 거룩의 필요에 대해 들었었지. 나는 회개 및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누릴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했고, 그 모든 것을 남용했다. 나는 죄악을 버리기를 거절했고, 신앙 생활에 힘쓰는 것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절했다.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히 잃은 자가 되었다. 오! 내가 허송세월로 보낸 그 많은 달들 중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 주들 중 한 주만이라도, 심지어 그 날들 중 하루라도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살렸더라면! 하지만 모든 기회는 지나갔고, 잠시 동안이라도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구나! 오,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았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가! 천국의 빛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건만 태만과 부주의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너희 생각없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여! 당신이 지금 당신의 양심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고 안 들리게 할 수 있을지라도 양심이 당신을 대신하여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때는 오히려 공포로 가득한 영원한 때가 될 것이다. 그때는 가장 강박하고 후회 없던 마음도 양심의 소리를 큰 소리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

으로 있는 동안 지금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라.

당신과 나는 지금까지 엄중한 심판의 날에 대해 들었다. 당신과 나는 눈 깜짝한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다. 무덤 안에 누더기처럼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 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요 5:28-29). 나의 형제여! 당신의 운명은 어느 쪽인가? 아직 때가 이르기 훨씬 전에 우리가 어느 쪽인지 미리 알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이 이것을 미리 알아보라고 이미 제안했다. 당신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행복한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자, 나는 다시 반대로 제안하겠다. 당신은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는 수많은 비참한 무리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의 지식 가운데 당신의 세심한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질문이다.

+++++

오늘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분의 절대 주권,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 변할 수 없는 공의, 변함없는 진실성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불신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의 완전한 부패, 영적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 그가 "이미 정죄" 받은 사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사실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죄인들이 끔찍한 위험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 그들이 현재의 진로를 조금 더 따라 가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가장 분명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는 형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 형벌의 끔찍함, 그것의 절망, 견뎌낼 수 없는 상태 및 그 형벌의 영원함이다.

— 아더 핑크

5. 상실의 고통

출처: "Of Hell" in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Boston*, Vol. 8.

저자: 토마스 보스턴(1676-1732):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며 학자. 22권으로 된 그의 전집이 있다. 버르위크셔 둔스 출생.

역자: 황모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겪게 될 상실의 형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배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 길은 영원토록 차단되고, 그 다리는 끊어지고, 그 광대한 구렁은 변치 않고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상태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장소적으로 분리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복있는 자들의 자리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 것이다(마 22:13). 사실 그들은 장소적으

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그들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 139:8).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분리되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그들이 바깥 어두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한가운데에 계신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채우고 그의 보응하시는 공의의 실현으로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결코 맛보지 못할 뿐더러, 그 분으로부터 매우 작은 소망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로부터 완전하게 떠나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와의 영원한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와 기쁨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천국의 지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오직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노의 파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홍수를 영원토록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샘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며 오직 영원한 겨울과 끝이 없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태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겨진다. 천국의 행복이 엄청난 것처럼, 그들의 상실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천국의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악인의 이러한 분리는 **1) 원치 않는 분리가 될 것이다.** 현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부르고 간청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즐거이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더라도, 주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2) 총체적이고 완전한 분리가 될 것이다.** 총체적인 분리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주께로부터 오는 지극히 작은 빛과 은총도 없는 완전한 어두움에 던져질 것이다. **3) 최종적인 분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과 헤어질 것이며 영원한 공포와 좌절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은총이나 선의의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상실의 형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며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의 끔찍한 경험만이 이 고통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질 수는 있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1)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최고 악이 된다. 최고선이시고 다른 어떤 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없다. 그분을 총만히 누리는 것은 피조물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최고 정점이다. 그렇다면 그분으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비참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인간의 비참은 어떠하겠는가?

(2)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이 피조물에게 흐르고 그들 안

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 유지된다. 피조물에게 있는 모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선함과 온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성적인 피조물과의 만족할 만한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평안의 빛의 소멸을 가져온다. 우리 주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마 19:17)고 말씀하신다. 그 어떤 선함과 만족도 피조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 같은 선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 또한 어떤 이가 다른 피조물을 통해 얻는다고 생각하는 음식, 음료, 예술 그리고 과학 등에서 얻는 달콤함, 안식, 즐거움 또는 기쁨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피조물을 향해 흐르는 신적 완벽성의 아주 희미한 빛줄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영향력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면 즉시 없어지고 만다. 피조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거나 좋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안팎으로 마시는 모든 만족의 샘물은 그것의 원천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괴로움이 따라온다. 모든 기쁨은 떠나고 오직 슬픔만이 그들 안에 자리 잡는다. 모든 고요함과 안식은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공포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운다.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들이 지금 억누르는 성령의 일반적 역사가 영원히 사그라지고 죄가 최고봉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홀로 남겨지면 죄와 비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절망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분리가 지옥 중의 지옥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선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열망했던 좋은 것들은 이제 그들의 바람 저 너머에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곳에서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못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관능적인 사람은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 심지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한다(눅 16:24-25). 기력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없다. 지친 자를 새롭게 하는 장도 없다. 슬픔에 가득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음식 및 즐거운 동료가 없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멀리하였던 선한 것들에 관하여서는 다시는 들어보지 못할 것이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부르짖음도 없다. 멸망의 구덩이 안에는 용서도, 평안도, 구원의 샘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선과 만족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3) 인간은 천성적으로 행복을 열망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뭔가를 외부에서 찾고자 한다. 영혼은 본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어떤 다른 피조물도 영혼의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참되고 흔들림 없는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이성적 존재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지옥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피조물 안에서 만족을 구하였다. 어떤 것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아 나섰다. 따라서 그들은 헛된 소망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속이며 세월을 낭비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후 지옥에서는 피조물을 통해 얻던 모든 만족은 실패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림자는 한 순간에 사라진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분리될 것이며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들은 행복을 바라는 극심한 굶주림 아래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들은 분명히 최소한의 만족감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모든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저주받은 자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찢을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그들이 그 저주 아래서 소리 지르며 격분하겠는가? 얼마나 그 저주가 영원토록 그들을 찢고 괴롭히겠는가?

(4) 저주받은 자들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완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그들의 상실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과 아무 것도 공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영광스러운 성도들 및 천사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천국의 성도들의 행복에 대해 매우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얻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는 지옥에 있는 부자에 대해 한 가지가 매우 분명하다. 이 경우, 마치 아픈 사람이 건강의 복을 알고, 옥에 갇힌 죄수가 자유의 행복을 아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에 있는 자들은 성도의 행복이 어떠한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가망은 전혀 없을지라도 천국에 있는 자들의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행복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게 할 것이다.

(5)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의 무리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상실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복음을 경멸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졌던 사실을 쓰라림 가운데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으라는 권면과 강권을 받았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겪는 고통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권면도 받았으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복음을 무시했기에 뜨거운 지옥에 와 있다.

(6)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상실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되고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수억만 년의 세월을 보낸 후 그들이 잃은 것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상은 없어졌고 다시는 얻을 수 없다. 두 가지가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첫째, 그들은 영혼을 상실한 후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야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된다. 둘째, 그들은 구원을 찢꺼기와 배설물과 맞바꾸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천국을 버렸고, 지금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렸다. 술주정뱅이의 잔도 사라졌고, 탐욕스러운 자의 이득, 관능적인 자의 성적인 쾌락, 그리고 나태한 자의 안락함은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잃어버린 행복은 참으로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그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6. 영혼의 고통

출처: "The Punishment of the Wicked Dreadful and Interminable" in The Works of

Edward Payson, Vol.3.

저자: 에드워드 페이슨(1783-1827): 미국 회중교회 목사. 뉴햄프셔(New Hampshire)주 린지(Rindge)에서 출생.

역자: 조현목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4).

신실한 목회자는 항상 자신의 설교를 성경과 비교해야 하며 자신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설교에서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면서 필자는 죄를 뉘우치지 않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후 심판에 대해 강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경과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후 심판에 대한 교리가 최근 필자의 설교에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자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주제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임무는 몇몇 사람의 유익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이며,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들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필자는 감히 우리 구주보다 더 지혜롭거나 사랑이 많은 척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다. 주님은 청중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셨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신다. 우리의 풍습과 같이 때때로 유대인들은 시신을 무덤 안에 안치하며 그곳에서 구더기들은 시신을 먹어치운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장용 장작을 쌓고 그 위에서 시신이 불에 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훨씬 더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죽음을 죽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 구더기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죽어가며 둘째 사망의 극심한 고통을 받지만 결코 존재하기를 멈추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장사되거나 불에 탄 시체가 구더기가 자신을 먹어치우고 자신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감정들을 생각하며 비유적 표현의 베일을 들어 올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끔찍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자.

이 진실에 대해 서술하는 데 있어 필자는 죽음 이후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고통이 심판의 일부를 차지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그들의 육신이 멸망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한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눈을 들었던 부자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은 육신의 고통만이 비참함의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확실히 육신은 영혼의 종이며 많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는 데에 있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 가지만 말할 것은, 부활 이후 악인의 몸은 그 육신이 불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즉시 죽음을 가져왔을 큰 고통을 계속 견딜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부활 이후 악한 자들의 욕신의 속성과 그 욕신을 기다리는 비참함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선포는 주로 영혼의 고통에 관한 것들이다. 죽음 이후에 영혼을 갇아먹는 구더기는 과연 무엇인가?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1) 분노와 욕망. 본성적으로 분노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영혼을 잡아먹고 이생에서조차 극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고 덜 거친 사람들은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켜봄으로써 동일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짜증을 잘 내고 불안해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라. 이미 그의 마음에는 분노의 갇아먹는 구더기가 있지 않은가? 생 많은 사람이 원수가 칭찬받고 성공할 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할 수 없이 아파하는 것을 보라. 그의 가슴에 분노라는 갇아먹는 구더기가 있지 않은가? 부를 좇다 지쳐버린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매일 시달리는 사람을 보라. 어떤 다른 벌레가 이보다 더 악하게 그들을 갇아먹을 수 있겠는가? 대중의 지지에 자신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야망 넘치는 사람을 보라. 그는 계속적인 출세를 원하지만 경쟁자에 의해 또는 역경으로 인해 좌절될 때 그의 머릿속은 온갖 불만과 질투, 그리고 경쟁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때 그의 가슴엔 계속 이를 갉아 먹지 않은가? 실제이든 착각이든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했을 때 피가 끓는 교만한 자를 보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지 아니한가? 그는 언제나 다툼 거리가 있다. 또한 술에 빠진 술주정뱅이를 보라. 당신은 이 진리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분노가 사람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인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때때로 분노는 성공 때문에 일시적인 평온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노를 자극하는 대상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한 동안 조용하다. 돌봐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면 화를 내거나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감당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그들의 분노를 자제시키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분노를 약화시키거나 적어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간간이 잠을 자야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은 분노도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라. 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른다고 하자. 성공의 기쁨도 없고 그의 성난 분노를 잠재울 것도 없다고 하자. 그의 가장 강력한 분노를 자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의 앞에 놓여있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내외적인 통제 장치들이 제거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로 인하여 이 땅의 삶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죄인의 분노와 욕망이 이 땅에서 초래하는 비참과 죽음 이후에 초래할 것들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비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곳에서는 유아기 단계에 있는 그의 분노가 그곳에서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통제장치들이 벗겨질 것이다. 그곳에서는 그의 주의를 돌릴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며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고통의 느낌을 잊게 해 줄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그의 욕망은 대단히 강해지지만 그가 늘

원했던 모든 대상들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악의와 잔인함으로 들끓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일 것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의 분노가 최고로 날뛰도록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잠이 주는 지금의 짧은 휴식도 그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 아니다. 고통보다 인간의 분노를 더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없다. 평소에는 좋은 기질을 지닌 사람조차도 극심한 고통과 오랜 질병 또는 반복되는 낙심으로 인해 종종 참을성 없고 만족할 줄 모르며 심지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후의 강렬하고 소망 없는 고통에 의해 죄인들의 분노는 얼마나 끔찍이 타오를 것인가! 괴로움으로 인해 얼마나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할 것인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오하며 대항하는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해 하나님과 모든 선한 존재들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완강한 적개심을 느낄 것이다.

성경은 또한 죄인들과 기쁨 가운데 있는 의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이가 있고 죄인들은 먼발치에서 의인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품었던 모든 부러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들은 절망의 공간에서 그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주장이나 권유 혹은 언행들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여러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오게 만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들고 가장 심한 비난의 말을 하며 격렬히 분노할 것이다. 죄인들은 그곳에서 행여 이 땅에 있을 때 지냈을 본성적인 애정이나 상냥한 기질의 흔적을 그 누구에게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든 시대의 악인들이 우리 안의 굶주린 사자처럼 어두운 흑암에 갇혀 자신들을 갉아먹는 분노와 신성모독, 저주, 극악무도함과 격렬한 광기로 인해 고통 받는 비참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호 8:7). 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최악 가운데 마음껏 분노하였고, 그들의 분노는 바람이 광풍이 되어 불며 사후에 그들을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할 것을 의미한다.

2) 주님이 말씀하신 갉아먹는 구더기는 죄인의 양심을 포함한다. 분노의 갉아먹음보다 양심의 갉아먹음이 훨씬 더 끔찍할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한 고통은 죄인의 분노에 의한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양심의 채찍은 매를 가할 때마다 피를 흘리게 한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서조차 양심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광기, 자살로 이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장 큰 책망의 소리라도 죽음 이후의 천둥과 같이 내려치는 양심의 음성에 비하면 옅은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 양심은 드문드문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양심은 쉬지 않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는 사업이나 오락의 현장으로 달려가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것이다.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에는, 아아, 많은 미친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 동안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잠시라도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거나 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이 세상에서 양심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나 우리의 의무 또는 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죄인을 채찍 해야 하는 때에 도망치도록 둔다. 그러나 그곳에서

양심은 모든 것을 영원의 빛으로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국 작은 끈으로 된 채찍 대신 전갈의 채찍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과 주님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천국과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범한 모든 죄와 모든 악화와 결과들, 그가 즐겼던 모든 안식일과 들었던 설교들, 무시했던 경고들과 복음의 음성들, 낭비했던 기회들, 무시했던 심각한 마음의 감동들 및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의 앞에 나란히 놓여 있어 의식적인 죄책감이 산더미처럼 그를 짓누를 것이다.

아아, 말할 수 없는 회한의 고통과 쓰라린 자책감, 아무런 소용없는 후회와 그동안 잘못 쫓았던 열매 없는 소망들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찌르겠는가! 후회(remorse)라는 단어는 ‘다시 갹아먹다’ 또는 ‘계속해서 갹아먹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고발하는 양심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한 단어는 없다. 지금은 잠들어 있는 양심의 기운이 영원의 빛에 의해 깨어났을 때, 이는 갹아먹는 구더기에 비유될 수 있다. 양심의 힘이 비교적 약해 있는 이 세상에서조차 필자는 종종 병든 사람의 침대와 방 전체가 양심이 가하는 채찍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경련을 일으키며 떠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은 그들이 견디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건장한 체격과 활기 넘치는 건강 그리고 강한 정신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한 남자가 죄책감과 쓰라린 후회의 무게로 인해 사시나무처럼 떨어져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남자는 육체에 고통을 가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겨울 자정에 맨발로 얼어붙은 거친 땅을 몇 킬로미터나 달려 갔다고 한다. 어떤 불신자는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전능자 외에는 줄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갹아먹는 양심이 주는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우리 주님은 갹아먹는 구더기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필자는 악인들의 육신의 고통이 성경의 어느 곳에 나와 있는지에 대해 함부로 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영혼에 관한 한 강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의로우신 분노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신 4:24; 히 12:29),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신 32:22)라고 기록한다. 이 표현들은 불이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속적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분노와 결합하여 영혼의 힘을 사그라뜨리고 그 기운을 바싹 마르게 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불이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둘러싸인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며 마음을 위축시키는 하나님의 눈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의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의 존재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위대하고 영화롭고 위엄 있으신 무한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 가운데 당신을 마주할 때 어떠하겠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볼 때는 어떠하겠는가! 오, 이는 정말로 영혼이 불에 데는 것이다! 그 불은 모든 감각으로 느껴질 것이고 고통은 극에 달할 것이다. 창조주는 그분의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은 물리적인

불이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오, 그렇다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7. 감각의 고통들

출처: "Of Hell" in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Boston*, Vol. 8.

저자: 토마스 보스턴(1676-1732):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며 학자. 22권으로 된 그의 전집이 있다. 버르위크셔 둔스 출생.

역자: 오병재

불에 타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로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다. 가장 정욕적인 남자라도 이 땅의 모든 쾌락을 누리는 조건 하에 과연 작렬하게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단 30분이라도 들어가려 하겠는가?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준다고 해도 이 일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사실 훨씬 더 천박한 조건 하에서도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해 지옥의 영원한 불뭍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있다. 지옥 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불보다 더 강렬하고 무서운 불이다. 이 사실은 다음을 고려할 때 드러난다.

(1) 천국에서 은혜는 완전하게 되며 혜택과 즐거움도 절정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죄는 지옥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고 악에 대한 형벌 역시 그곳에서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즐거움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어떤 즐거움들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지옥의 형벌은 이 땅의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2) 왜 저 세상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로 옷 입혀져서 우리에게 제시되는가? 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역량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께서는 필요에 의해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표현하신다. 그러므로 저 세상의 것들은 글로 표현된 것보다 더 완벽한 종류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불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고통스럽고 통렬한 불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옥의 고통은 오직 불에 대한 개념보다는 여러 다른 개념들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개념만으로는 지옥의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옥의 고통은 저주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불’에 타는 개념으로 참으로 끔찍하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옥에서의 죄인들의 비참의 상태를 다 표현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대해 듣게 된다. 이는 지옥에 있는 저주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죽게 될 것을 알려준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계 14:19)도 그들이 주의 분노와 진노 아래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은 끝없이 부서지고 멍들고 압박당할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또한 “죽지 않는 벌레”는 영원히 그들을 갇아 먹을 것이다. “바닥없는 구덩이”(계 20:3)는 그들이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옥은 ‘불’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불과 유향의 “호수”로도 불린다. “유향불로 타는 불뭍”은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표현이다. 하지만 불은 빛을 내며 솔로몬의 관찰에 의하면 빛은 감미로운 것이다(참조, 전 11:7). 그러나 지옥에는 빛이 없다. 오직 어둠, 칙흑의 어둠만 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밤만 있고, 위로가 될 만한 것이나 회복할 힘을 줄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3) 이 땅의 불은 영혼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영혼과 연합되어 있는 몸을 통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옥 불은 저주받은 자들의 몸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이 땅의 불은 악한 영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지만, 그곳의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 불은 그 영혼을 직접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렬해야 한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활발하고 예민한 부분인 그 영혼 안에서 영원히 타는 뜨거운 불이 되어야만 한다. 이때 그 상처와 고통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4) 지옥 불을 예비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불의 강렬함과 끔찍함을 입증한다. 본문은 이에 대해 “예비되었다”라고 말한다. 즉, 지옥 불은 “준비된 불”로서 매우 특별한 불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불은 평범한 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불로서 지독하게 뜨거운 불이었다. 따라서 용광로의 불은 일반 불의 일곱 배나 더 뜨거웠다(단 3:19-22). 마찬가지로 저주 받은 자들은 지옥에서 특별하게 마련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불은 인간 세상에서 따로 마련한 그 어떤 불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장 뜨거운 불일 것이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불이다. 그 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마련된 결과물로서 죄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혹독한 신성한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들은 인간의 표현 및 개념을 초월할 정도로 선하고 좋은 것들인 것처럼 또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마련하신 것들도 인간의 말과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끔찍한 것들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친히 “소멸하는 불”(신 4:24)이 되셔서 그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몸을 삼킬 것이다. 이 땅에서 불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타오르는 용광로에 갇히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 땅의 불에 의해 타는 공포는 사라진다. 이것이 저주받은 자들의 운명이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사 33:14).

지옥에서 불로 타는 고통의 특징들

(1) 그들은 전부 다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곳에 있는 피조물의 모든 부분이 그 불꽃 속에서 고통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오르는 용광로에 떨어지면 불이 그 심장까지 태울 정도로 모든 지체를 다 태울 것이다. 그때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서 수영하며 유황으로 타게 될 때 어떤 부분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그들의 몸은 영원히 고통 받으며 그 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기멸 만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 및 주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상패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몸의 어떤 부분도 온전하거나 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둘째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늘 죽어가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죄를 지은 주범이기 때문에 고통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죄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고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복을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불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밀랍처럼 녹일 것이다. 누가 죄인의 자리에 선 ‘증보자’에게 내려진 그러한 진

노의 세력을 알겠는가?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도다”(시 22:14). 그들의 마음은 결코 누그러질 수 없는 진노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끔찍한 공포로 가득찰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을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영원히 모든 일에 있어서 좌절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는 하나님의 법규에 드러난 주의 뜻을 항상 대적하였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그들을 다루실 때 그들의 뜻과 영원토록 대항하실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여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마다 아무런 치유책이 없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운 감정은 그들의 마음 안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자신을 끝없이 미워할 것이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또는 자신들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든 동료-피조물들을 향하여 한없는 증오와 걱정과 분노를 지닐 것이다. 그들은 걱정에 시달리며 공포로 가득 찬 채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짜증과 안달로 불안할 것이고, 끊임없는 절망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욕을 할 것이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 22:13). 양심은 그들을 먹이로 삼아 갇아먹는 벌레가 될 것이다. 지난 날의 죄악에 대한 후회가 그들을 사로잡아 영원히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한때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벌레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기억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모든 새로운 회상은 또 다른 번뇌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하였다.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눅 16:25).

(2) 지옥에서의 고통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몸에 단번에 동시에 통풍과 담석 및 온갖 질병과 고통에 다 걸렸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고통마저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겪을 고통에 비교하면 그저 가벼울 것이다. 이는 지옥에서는 모든 좋은 것과 바라는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지막 대심판 이후에 죄와 저주의 모든 결과들이 지옥에 전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불뿔은 그들이 끝없이 수영하면서 타는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구덩이에 빠져 결코 바닥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떨어질 것이다.

시체가 불에 타듯이 꺼지지 않는 불은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의 눈은 조그마한 위로의 빛조차 보지 못한 채 칠흑의 어둠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들의 귀는 지옥의 무리들이 부르는 두려운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통렬함과 주의 진노의 잔에 남은 찌꺼기 외에는 아무 것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타는 유황뿔의 냄새는 그곳 전체의 냄새가 될 것이다. 그들은 끝없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3) 지옥에서의 고통들은 가장 혹독하고 격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참조, 마 13:42, 22:13). 그 고통들은 우리에게 매우 예리하고 격심한 출산의 고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눅 16:24)라고 말한다. 아! 끔찍한 고통이여! 영혼과 몸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며 소름끼치는 무시무시한 절망 가운데 있으니! 그 고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

으며 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놀랄만한 고집과 담대한 용기로 끔찍한 고문들을 견뎌낸다.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떠한 용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과 그 손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지옥에서 고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마 11:21, 22).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리 작은 진노의 고통일지라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실 때 어떤 피조물이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손이 강할 수 있겠는가? 쪽정이가 땀감으로 묶이는 것처럼 그때에는 탐욕스런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욕쟁이들, 더러운 사람들, 위선자들, 불신자들, 복음을 멸시한 자들 및 그와 같은 자들은 다함께 ‘여러 묶음들’이 될 것이다. 여러 “묶음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며 어떤 묶음들은 다른 묶음들보다 더 맹렬하게 탈 것인데 이는 그들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욱 가증스러웠기 때문이다.

(4) 그 고통들은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종간의 쉼이 없다. 한 순간도 편안함이 없다.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때때로 쉼이 주어진다. 그러나 저주 받은 자들은 전혀 쉼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모든 휴식을 완전하고 영원히 치우시기 때문이다. 소나기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는 그러한 폭풍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옥에서 악인들에게 임하는 폭풍에는 아무런 중간 휴식이 없다. 그곳에서는 깊음이 깊음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진노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하늘이 철저히 어두울 것이며 그들은 아무런 쉼도 없어 영구적인 밤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계 14:11).

(5) 그들은 동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지독한 악인이라도 그가 처형될 때는 관중들 가운데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할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재앙을 보며 웃으실 것이다(참조, 시 1:26). 하늘의 복된 무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연기가 영원토록 위로 오를 때 찬양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계 19:3). 그들은 마귀와 악령들로부터 그 어떤 동정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은 영원토록 동정심이 없는 존재들로서 사람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서로 간에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애착이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불꽃 가운데서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종들은 그의 주인을 멸시할 것이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고통 아래 신음할 것이다.

(6) 그들의 비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는 세세토록 위로 오를 것이다(계 14:11)! 아아! 온 몸과 영혼이, 그것도 하나의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니,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가! 이 모든 고통들은 가장 지독하게 아픈 고통들이며, 이 모든 고통들은 중간에 휴식이 전혀 없고 그 누구로부터 아무런 긍휼과 도움을 얻지 못하는 고통들이다! 어떤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최고의 비참이 마침내 끝이 난다면 조그마한 위로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참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8. 지옥에서 도망치기를 권함

출처: “The Eternity of Hell Torment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미국 회중 교회 설교자. 대각성 동안에 설교하였다. 식민지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 출생.

역자: 백금옥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음과 광패 가운데 이 땅의 삶과 잠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고통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보다 잠시 누릴 수 있는 작은 쾌락과 돈,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을 더 좋아한다. 만일 지옥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막 8:36-37).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비참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맛보면서도 지옥을 무시한다. 그들이 한 동안 고통을 당할 때면 잠시 세상을 추구하기를 멈추지만, 다시 정상이 되면 어느새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이 땅의 것을 향한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이든 늙은이든 예외가 없다. 허다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부주의한 삶을 살고 있다. 중년의 숙한 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무덤에 가까이 서 있는 늙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의아하게도, 영원한 불뭇이 바로 코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삶을 즐기고 평안을 누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실이 곧 끊어질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말로는 그들의 실이 끊어진다는 것을 아는 척 한다. 만일 그 실이 끊어지면,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필자는 죄인들이 이러한 영원한 고통을 피할 것을 간절히 권한다.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라면 당신은 지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고통은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 고통은 당신이 지금껏 보고 들었던 그 어떤 악과 죽음과 고통보다, 심지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무한하다.

1) 영원한 고통은 참으로 끔찍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지극한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라. 밤낮으로.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심지어 각 세대마다, 나아가 수천 세대를 걸쳐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의 영혼은 끔찍한 슬픔과 좌절로 가득하고 당신의 몸과 모든 지체는 누그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 속까지 아픈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부르짖는 당신의 절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당신의 생각을 고통으로부터 회피할 수도 없다. 또한 그 고통은 더 나아질 기미도, 도움도, 변화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

2)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겪을 끔찍한 절망을 기억하라. 당신은 이러한 지옥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그 절망은 얼마나 크겠는가?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흑으로 돌아가기를 바랄지라도 그럴 수 없다. 만일 수억만 년의 고통의 기간을 지낸 후에라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소망마저 없다. 이러할 때 당신의 절망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이 태양과 달과 별들의 존재 기간만큼 아무런 쉼의 날이나 밤도 없이, 그리고 잠깐의 휴식도 없이 쉬지 않는 처참한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구원을 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 또 다시 수천 년을 고통 가운데 지낼지라도 고통의 끝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데다. 그러므로 당신은 완전한 절망 속에 있게 된다. 끝없는 고통으로 쉬지 않는 신음과 비명과 슬피 우는 절규가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한다. 또한 당신의 영혼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요동할 것이고, 심지어 더 심한 주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당신의 몸은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영원히 탈 것이며 그럼에도 타서 재가 되지 않기에 쉬지 않고 불에 탈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불에 뒹어도 앞으로 탈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지옥에서 더욱 저주스러운 것은 끔찍한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며 그 고통은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아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들의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고통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후에도 끝없이 더욱 심해지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끔찍함이란 어떤 것일까! 지옥의 저주는 두 가지의 영원한 사실이 그들을 더욱 사로잡는데 있다. 하나는 그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원수가 되어버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의 기간이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몸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일 그 고통을 계속 감당해야 할 경우, 그는 그의 현 상태에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의 '영원함' 때문에 더 없는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로 지옥을 향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날마다 이 세상에서의 저주를 대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발 지옥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당부한다. 만일 지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잠시 후에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당신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곳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올해 내에, 아니 이 달에, 혹은 이번 주에, 심지어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설교를 듣기 전에,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3) 이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을 피하라. 지옥으로부터 도망치라. 그리고 죄인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을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감당하셨다. 이 소식은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될 당신과 같은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식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며 또한 얼마든지 거저 구원하신다. 그렇다. 당신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다.

당신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지은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빚의 일부마저도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원한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만족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그분에 의해 구원을 받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9.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출처: 뉴윙톤 메트로폴리탄 교회 1869년 10월 3일 주일 오전 설교 중에서

저자: 찰스 스펀전(1834-1892): 영국 침례교 목사.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널리 읽힌 설교자. 영국 켈베돈 엑세스 출생.

역자: 이충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1:17-18).

사망은 어둠 그 자체로서 어떠한 질서도 없는 어둠의 영역이다. 그러나 주권자의 눈은 죽음을 측량하시고 주님의 손에는 사망의 열쇠가 있다. 음부(지옥) 역시 끔찍한 곳이다. 그러나 음부는 주님의 존전에서 무서워 떠난다. 하늘과 땅, 심지어 땅 아래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뒤엎을 수 없음에 기뻐하자. 주님은 모든 곳에서, 요동치는 파도 위에 평온하게 영원히 왕으로 앉아계신다. 이 우주의 어떤 장소도 주님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일들에 우연이란 없다. 우연과 혼동이 군림할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악이 진정 영원히 다스릴 곳은 어디에도 없다. 주님이 하늘에 보좌를 두셨고 주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리니 안심하라. 가장 낮은 곳의 음부와 사망조차 주님의 통치를 받을진대,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을 때,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여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요한은 이 무서운 곳(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한다(계1:13). 그리고 우리는 그 인자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졌다. 즉,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지니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형제들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다스리신다. 열쇠의 비유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주님의 두 가지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하나는 사망과 음부에 대한 정당한(합법적인) 통치권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음부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권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그 어둠의 지역(사망과 음부)에 대한 합법적인 주이시며, 파괴될 수 없는 통치권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무덤(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통치하시고 다루신다. 그리스도는 음

부의 모든 회의를 관할하시며 사탄의 계계를 억누르시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신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시다! 주님의 통치는 피조물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어떤 곳에 있던 상관없이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미친다.

여기서 언급된 이 열쇠의 권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로, 이 열쇠는 ‘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여실 수 있다. 구별된 영혼들을 위해 문을 열고, 주님의 성도들을 한 사람씩 그들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할 시간이 되면, 가장 사랑하는 그분께서 친히 그 손으로 황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진주로 된 문을 열고 의로운 자들을 영의 세계(천국/낙원)로 들이실 것이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살 수 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망의 감옥의 모든 문지방이 열릴 것이며, 무덤의 큰 쇠문들이 굴러 옮겨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중에 그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요6:39).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영혼 뿐 아니라 그 몸까지 값을 치르고 사셨다. 주님은 ‘주님’의 피로 주의 백성들을 대속하셨고, 이에 그들의 유한한 육체는 성령께서 거하시게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얻으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함으로 얻은 소유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잃게 되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사26:19).

그러나 이 열쇠는 또한 그 문을 ‘닫기 위해’ 사용된다. 과연 예수님은 문을 열어 받기도 하시지만, 닫아 막기도 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고 황금 열쇠로 그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이 문을 닫는 맞은편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열쇠로 불신자들을 향해 천국의 문을 닫으실 것이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데 쓰인 열쇠는 지옥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그곳에 갇히게 되는 영혼들을 들이고 그 문을 닫는데 사용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눅16:26). 그리스도의 열쇠는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차단함으로 그들의 잠깐의 휴식을 위한 산책과 사면에 의한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과 친히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안다. 따라서 주님은 저주받은 영혼들 다스리신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인자의 통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그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한다. 그 끄는 가마솔 안에서 화염의 모든 움직임은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인장은 모든 죄사슬에 찍혀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의 포악성은 남아있을지라도, 오만한 자량은 그들로부터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역할 것이지만, 자신들이 아무런 가망 없이 결박되어 있고, 그들의 소망을 성취할 아무런 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의 가장 큰 공포중 하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이 거역했던 그 주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오직 파괴하는 전능자로서 친히 그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다. 가장 단호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당돌하게 저주했던 불신자들, 볼테르²⁾와 페인³⁾과 같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적의적인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자들이 경악하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놀람은 어떠하겠는가! 기독교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고 말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죄스러운 영혼 위에 용광로와 같이 영원토록 비추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압도하는 그 충격과 당혹감은 어떨겠는가! 오,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주의 자비에 의한 통치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서 모든 저주받은 영혼들을 다스리실 권세가 있으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마귀들을 다스릴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한다. 오! 그리스도의 비열한 노예인 사탄이여! 너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역에서 일하는 점시뉘이일 뿐이다. 네가 자신의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뒤엎으려는 생각할 때에, 심지어 그 때에도 너는 단지 장기판의 말로서 주인의 목적들을 이뤄갈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헛되이 주님을 모독할 뿐이다! 보라! 그리스도의 허리춤에 지옥의 열쇠가 달려있다. 모든 저주받은 영혼들의 군단은 떨지어다.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은 매우 즐겁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그곳에 가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들 중 하나일 것이다. 유혹도, 질병도, 피곤함도 없이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분의 성전 안에서 밤낮으로 섬길 것이다. 형제들이여, 천국에서의 모든 기쁨들 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를 섬길 생각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아! 우리의 노래는 얼마나 황홀할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또 얼마나 간절할까!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먼 세상을 향해 사명을 주셔야 한다면, 아마도 주실 것이다. 만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미지의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려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새로운 무한한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섬김의 그 부름을 얼마나 강렬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얼마나 끊임없이,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가! 오, '여기 이 곳'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다 위에 서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천국이겠는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봄으로써 열쇠의 권능을 설명하는 것을 마치기 원한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로부터 죽음의 모든 문제들이 오직 주님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예수님이 죽음의 그 신비한 문을 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 불경건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심지어 욕쟁이의 숨결을 유지시키는 것도 주님의 중재와 간섭이다. 오,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될 죄인이여,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로 죽음의 입으로부터 그대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소멸된 지 오래 되었을 것이다. 주의 성도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죽음이 완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가 고열과

2) 볼테르(Voltaire). 본명은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cois Marie Arouet, 1694-1778). 프랑스의 계몽주의 반기독교 극작가 겸 작가.

3)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 집필가, 혁명가, 무신론자이자 성경비판자였다.

전염병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장 건강한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모든 공기가 치료약 같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단 1초도 더 살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정확한 장소, 환경, 그리고 시간은 모두 주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고 사랑과 지혜 안에서 오래전에 확정되어 있다. 수천의 천사들이 우리를 무덤으로 내 몰수 없고, 예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 천사장이라도 우리를 무덤에 가둘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의 명령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상상하는 것이 측량할 수 없이 달콤할 지라도, 또한 주께서 원하신 때에 주께로 가는 것 역시 달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문이 아니다.

이 능력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질 권한을 취하셨는가?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그 권리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6)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자신의 존재양식을 선포하신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 대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보호하는 분이시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것들에 관하여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그것들은 공기 중의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존재하신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실재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왕관을 씌워드리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통치를 하시도록 하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두렵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어찌 우리가 단지 인간인 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기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천사를 바라보거나 피조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바위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결한 즐거움으로 빛나게 하라!

그러나 이 권세들의 열쇠를 얻으신 것은 또한 우리 구세주께서 그 권세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실제로 죽음과 지옥의 권세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얻으셨다. 당신은 공포가 엄습했던 갓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지옥을 마주하셨는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모여 어떻게 주를 대항하였는지 알 것이다. 주님의 격렬한 고통은 너무나도 괴로웠기에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공포에 맞서셨으며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끊임 없이 그 악한 권세들과 씨름하셨다. 그 질은 어둠이 깔린 한 낮에, 암흑의 한 가운데서 주

님이 여전히 싸우고 계신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님의 발꿈치는 상처를 입었지만 용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그 싸움은 무서웠지만 그 승리는 영광스러웠으며 천사들의 찬양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한 것이었다. 너희 스랍들이여, 가장 감미로운 수금을 탈지어다! 너희 그룹들이여,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용과 싸우시고 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그리스도께 영원 무궁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의 영역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은 음부의 왕을 정복하셨고 사탄의 일들을 멸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정복하신 그 영역을 다스릴 왕이 되심이 마땅하다!

사망에 관해, 당신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를 알 것이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사망을 무찌르셨다.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은 무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손이 되었다! 두 발이 그 나무에 묶였을 때, 그 발은 무덤을 짓밟을 수 있는 발이 되었다! 죽음의 고통이 구세주의 몸의 온 신경으로 퍼져나갈 때, 주님이 쏘신 화살은 사망의 허리를 명중하였다! 고통받는 주의 영혼이 그분의 복된 육체를 신속하게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폭군(사망)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남겼다. 우리 주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원수의 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이었다. 주께서 돌무덤의 벽 안에 누우심으로 사망의 감옥은 편안한 소파로 변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밧줄에 묶여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영혼이 음부(하데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특히 부활을 통해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다.”⁴⁾ 마치 죽님은 무덤의 열쇠를 가지신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나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의 백성에게 값없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주님은 친히 그 열쇠의 권세를 얻어내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한 가지 더 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아들)이 일하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권세와 위엄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주님(아들)에게 “뭇을 받게 하겠다고”(사53:12) 약속하셨다. 주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참으신 그 수치로 인한 보상을 보라! 주님은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지셨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아지셨다.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과 음부(지옥)의 삼중왕관을 쓰고 계신다. 주님은 종들 중의 종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다. 이 땅에 주님의 처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님은 탄생 시에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빌린 무덤에 누이셨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우주가 주님의 것이다. 시간과 영원이 주님의 명령 앞에 쫓긴다. 그리고 아무리 작거나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시했던 주님을 아버지께서는 어찌나 놀랄 만큼 영화롭게 하셨는지! 주님을 찬양하자! 평범하지만 보배로운 이 진리를 생각하며 와서 주님의 발 앞에 나아와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풍성함을 펼쳐놓고 모든 것의 주님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4) 윌리엄 윌리엄스(1717-1791)의 찬송가 “오 위대한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 중에서 인용

이러한 목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지 않겠는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주를 기뻐하는 우리 자신을 찬송으로 표현하자.” 설교는 안식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무엇이 목적인가? 그 목적은 찬양이 아니던가? 즉, 예배를 통해, 특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는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열매이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할까봐 두렵다. 나는 신자들이 함께 모일 때, 만유의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 자주 찬송의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란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을 괴롭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주님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낸다. 오, 당신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당신의 삶의 거룩한 예배의 열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주님은 하늘과 죽음과 음부의 왕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세 영역의 왕이 되셔야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의인들에게 교훈을 준다면 이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각에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두려워 떨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죽음의 열쇠가 없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때에 주님의 긴 인내의 시간을 끝내실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 중 누군가에게 죽음의 문이 열린다면, 그래서 바로 오늘 당신이 말없이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의 문 안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오, 남성들이여, 그대에게 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 여성들이여, 만일 당신들의 눈이 침침해지고 맥박이 멈추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대에게 당신이 ‘갑자기’ 죽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 길을 숙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간청한다.

영혼들이여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와 끝까지 싸우고 그의 원수가 되려 할지라도,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며, 또한 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님을 피해 지옥으로 날아간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다스리신다. 당신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거절당한 사랑이 가시 달린 화살이 되어 당신을 찌를 것이다! 심지어 지옥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그 영광을 가리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며 그 영광은 당신을 쳐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간청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16:16).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라! 대속을 이루기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증보하시기 위해 살아계신 그분을 즉시 믿고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며, 당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시인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부 드린다. 주의 복음에 순복하라.